

민주국사

2016년 7급 지방직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

I. 출제 빈도 분석

2016년 단원별 문항 분석

출제영역	수	출제 주제	유형	난도
한국사의 바른 이해	0	-	-	-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구석기~철기)	2	· 신석기 시대의 사회상	서술	하
		· 부여와 옥저	사료	하
고대 사회의 발전(삼국~남북국)	4	· 근초고왕 업적	사료	하
		· 삼국시대 도성	서술	중
		· 고구려왕의 업적	지문	하
		· 경덕왕의 업적	사료	중상
중세 사회의 발전(고려시대)	2	· 고려시대 혼인풍속	서술	중
		· 인종 시기 고려도경	사료	중상
근세 사회의 발달(조선 전기)	3	· 조선시대 통치기록	서술	중
		· 조선시대의 사행(使行)	서술	하
		· 과전법과 그 변화	서술	하
근대 사회의 태동(조선 후기)	2	· 박지원	사료	중
		· 군역제도의 양상	지문	하
근대 사회의 전개(구한말)	4	· 흥선대원군	사료	중
		· 동학 농민 운동	사료	하
		· 아관파천 시기	서술	상
		· 광무개혁	사료	중
민족의 독립 운동(일제시대)	2	· 무단통치 시기 경제정책	서술	중상
		· 한국광복군	사료	하
현대 사회의 발전(광복 전후~현대)	1	· 여운형	사료	하

II. 출제 경향 분석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한국사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수험 공부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수록 지나간 시험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수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이번 시험에 대한 합격선은 85~90점 정도로 난도(난이도)가 다수는 쉽게 출제되었으나 3~4문항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특징은 인물과 관련된 문제나 문화사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었고 일부 사료나 예문에서 생소한 내용들이 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으리라 보기에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7급 국가직에 거의 준하는 어려움을 느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12번 문제는 예문 상에서 고구려왕의 업적을 전반으로 묻는 문제이나 구체적으로 고구려 부자세습이라고 언급이 부족하였고 경덕왕이나 박지원의 지문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온전한 실력 평가를 묻는 문제라 할 수 없기에 좀 더 정선된 문제와 문항 수를 늘려서 보다 개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수험생 입장에서는 실력을 쌓는 동시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내공을 쌓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국 사

KG페스원

담당 박민주 교수

문 1. 신석기 시대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무덤과 널무덤이 유행하였다.
- ② 방추차를 이용하여 옷감을 짜서 입었다.
- ③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등을 사용하였다.
- ④ 영혼숭배와 조상숭배가 나타났다.

◆ 출제 영역 : 신석기 시대의 사회상

● 정답 : ①

▶ 2017년 민주국사 62~67p

- 해설 : ① 시체를 두 개의 독이나 항아리를 이용한 독무덤이나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나무 널을 이용한 널무덤은 철기 시대에 유행하였다.
- ② 방추차(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하여 신석기 시대 직조 기술이 이루어졌다.
- ③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 찍기 무늬 토기 등은 웅기 서포항,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등 신석기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 ④ 영혼숭배와 조상숭배, 애니미즘, 토테미즘 등 원시 신앙은 신석기 시대 나타났다.

문 2.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백제왕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진(晉)나라 때에 구려(句麗)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 역시 요서, 진평의 두 군을 차지하였다. - 『통전』 -

- ①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케 하였다.
- ②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 ③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후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였다.
- ④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일본에 불교를 전하였다.

◆ 출제 영역 : 근초고왕 업적
 ● 정답 : ①
 ▶ 2017년 민주국사 148~149p
 ■ 해설 : 근초고왕 때 요서, 산둥지역에 진출하였다.
 ① 근초고왕은 황해도 지역을 두고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케 하였다.
 ② 무왕 때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③ 문주왕 때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후 동성왕 때 신라 소지왕과 결혼동맹을 체결 하였다.
 ④ 성왕 때 일본에 노리사치계가 불교를 최초로 전하였다.

문 3. 고려 말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과 150결에서 제18과 10결까지 차등 지급하였다.
- ② 지방거주의 한량품관에게 군전으로 5결 혹은 10결씩 지급하였다.
- ③ 수조율은 공전·사전을 막론하고 1결당 30두로 정하였다.
- ④ 전민변정도감의 주재 하에 분급 대상인 관인 선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 출제 영역 : 고려 말 과전법
 ● 정답 : ④
 ▶ 2017년 민주국사 528, 654p
 ■ 해설 : ④ 조준, 정도전 등 급진개혁파는 우왕과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세운 후 급전도감을 설치하고 과전법을 단행하였다.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후기 권세가에 의해 점탈된 토지나 백성을 들을 되찾기 위해 임시 기관으로 원종 때 최초로 설치되었고 충렬왕, 공민왕 때에도 설치되었다.

문 4. 다음 자료에 나오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그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여 힘써 교정하고 쇄신하니 치도(治道)가 맑고 깨끗하여 국가의 재정이 풍족하게 된 것은 득이며 장점인 것이요. ...(중략)... 쇄국을 스스로 장하다 하여 대세의 흐름을 부질없이 반대하였으니 이것은 단점이요 실정인 것이다.

- ① 군국기무처에서 총재관을 역임하였다.
- ② 을미의병이 확산되자 해산권고 조칙을 발표하였다.
- ③ 갑신정변이 발발하자 청군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 ④ 임오군란으로 집권하여 5군영을 복구하였다.

◆ 출제 영역 : 흥선대원군

● 정답 : ④

▶ 2017년 민주국사 1021p

- 해설 :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로 권자에서 물러난 이후 임오군란 때 구식 군대 요청으로 재집권하여 개화 추진 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5군영을 부활하였다.
 - ① 김홍집이 갑오개혁 1차 내각 때 국기무처에서 총재관을 역임하였다.
 - ②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단발령을 철회하고 의병의 해산권고 조칙을 발표하였다.
 - ③ 민씨(민항후)가 갑신정변이 발발하자 청군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문 5. 괄호 안에 들어갈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을/를 조직하고,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 (중략)... 이때 우리는 큰 희망을 갖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우리의 전투력을 강화할 시기가 왔다고 확신한다.

- ① 중국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를 수행하였다.
- ② 조선 본토에 투입할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였다.
- ③ 중국 팔로군과 함께 태항산 지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 ④ 연해주에서 러시아 적군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 출제 영역 : 한국광복군

● 정답 : ②

▶ 2017년 민주국사 1289p

- 해설 : 한국광복군(1940)의 선언문이다. 총사령관인 지청천, 지대장인 이범석 등을 중심으로 중국에 주둔한 미국 전략정보처(OSS)와 연합하여 국내 정진군의 특수 훈련을 통해 국내 진입 계획을 세우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①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이 중국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등에 활약하였다.
 - ③ 김두봉의 조선의용군이 중국 팔로군과 함께 태항산 지구 등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 ④ 서일의 대한독립군단이 연해주에서 러시아 적군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였다가 배신으로 자유시 참변을 당하였다.

문 6. 삼국시대 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구려 수도인 평양에는 장안성이 축조되었다.
- ② 백제 사비도성에는 중심지역 외곽에 나성을 둘렀다.
- ③ 신라는 산성을 축조하여 도성을 방어하였다.
- ④ 고구려 오녀산성은 국내성 방어를 위하여 축조되었다.

◆ 출제 영역 : 삼국시대 도성

● 정답 : ④

▶ 2017년 민주국사 98, 128p

- 해설 : ④ 고구려 오녀산성은 동가강 유역의 졸본(환인)에 있는 고구려 초기 도읍지이나 큰 산과 깊은 계곡으로 된 산악 지대였기 때문에 농토가 부족하여 양식이 부족하였기에 유리왕 때 압록강 가의 국내성(집안)으로 천도하였다.

문 7. 고려시대 혼인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혼 후 신랑이 신부집에 머무르는 '서류부가혼'의 혼속이 있었다.
- ② 국왕을 비롯한 종실의 경우 동성근친혼인 족내혼의 관행이 있었다.
- ③ 원의 영향으로 여러 명의 처와 첩을 두는 '다처병첩'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 ④ 공녀 선발을 피하기 위해 어린 신랑을 처가에서 양육해 혼인 시키는 '예서제'가 있었다.

◆ 출제 영역 : 고려시대 혼인풍속

● 정답 : ③

▶ 2017년 민주국사 408p

- 해설 : ③ 원 간섭기 충렬왕 때 일천즉천(一賤則賤)이라 하여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은 노비가 되는 것을 확실히 하였으며, 조선 전기까지 일반적으로 운여되다 영조 때 노비종모법에 따라 어머니 신분을 따르게 되었다.

문 8. 아관파천 기간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 ① 청량리 행 전차를 운행하는 기사
- ② 한성순보를 배부하는 관리
- ③ 대한천일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 ④ 백동화를 주조하는 주전관

◆ 출제 영역 : 아관파천 시기

● 정답 : ④

▶ 2017년 민주국사 1146p

- 해설 : ④ 백동화(白銅貨)는 개항 이후 급증하는 재정 수요와 당면한 재정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1892년부터 1904년까지 주조·유통시킨 화폐이다. 특히 1894년의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에 의한 은본위제 시행과 1901년의 「화폐조례(貨幣條例)」에 의한 금본위제(金本位制) 채택에 의해 보조 화폐로 계속 사용되다가 일본의 재정 고문 메가타가 1905년 화폐정리 사업을 하면서 제일 은행권을 본위 화폐로 삼으면서 종전 백동화나 엽전(상평통보)은 새 화폐로 교환하였다.
- ① 전차(1898년) 운행
 - ② 한성순보(1884~1885년) 발행
 - ③ 대한천일은행(1899년) 설립

문 9. '무단통치' 시기에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광업령으로 일본 자본의 광산 진출을 촉진하였다.
- ②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 ③ 토지 조사령에서 황무지의 국유지 편입을 규정하였다.
- ④ 조선 어업령으로 황실 소유 어장을 일본인 소유로 재편하였다.

◆ 출제 영역 : 무단통치 시기 경제정책

● 정답 : ③

▶ 2017년 민주국사 1147, 1220~1221p

■ 해설 : ② 토지 조사령은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황무지의 국유지 편입 규정은 없다. 단지 대한제국 시기인 1907년 일제는 국유미간지이용법을 공포하도록 하여 한국의 국유미간지 약탈을 본격화했고 1908년에는 동양 척식 회사를 설립하여 국가 소유의 미개간지와 역둔토 등의 토지 수탈을 강행하였다.

- ① 조선 광업령(1915년)으로 한국인의 광산 경영을 억제하고 일본 자본의 광산 진출을 촉진하였다.
- ② 회사령(1910년)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민족 기업의 성장을 억압하였다.
- ④ 조선 어업령(1911년)으로 일본인 중심으로 어업권을 재편성하고 한국의 어장을 독점하였다.

문 10. 다음 글을 쓴 인물이 만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翡色)이라고 한다. 근래에 만드는 솜씨와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술그릇의 형상은 참외 같은데, 위에 작은 뚜껑이 있고 그 위에 연꽃에 얹드린 오리 모양이 있다.

- ① 관학 진흥을 위해 국자감에 7재를 처음 설치하고 양현고를 두었다.
- ② 평양에 기자를 송배하는 기자사당을 세워 국가에서 제사하기 시작했다.
- ③ 경사 6학을 정비하고 지방의 주현에 향학을 증설하여 유교 교육을 확산시켰다.
- ④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고 그 안에 3경 5도호부 8목을 두어 지방제도를 완비하였다.

◆ 출제 영역 : 인종 시기 고려도경

● 정답 : ③

▶ 2017년 민주국사 493p

■ 해설 : 지문의 내용은 인종 때 송나라 사신 서공이 개경의 인물, 풍속 등 고려 각 분야를 소개한 「고려도경」의 내용으로 이자겸, 김부식에 대한 내용과 벽란도를 소개하였으며, 고려자기와 모시를 극찬하였다.

- ① 예종 때 전문 강좌인 7재를 처음 설치하고 관설 장학 재단인 양현고를 두었다.
- ② 숙종 때 평양에 기자를 송배하는 기자사당을 세워 국가에서 제사하기 시작했고 조선 세종 때는 단군 사당이 건립되었다.
- ③ 인종 때 경사 6학을 정비하고 지방의 주현에 향학(향교)을 증설하여 유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 ④ 현종 때 전국을 일반 행정 구역인 5도와 군사 행정 구역인 양계로 나누는 등 지방제도를 완비하였다.

문 11. (가)와 (나)의 풍습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력(殷曆) 정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國中)대회로 날마다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 한다.
 (나)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가매장하여 형체만 덮이도록 했다가 가죽과 살이 썩으면 뼈를 취하여 괘 가운데 넣는다. - [삼국지]

- ① (가) - 대군왕(大君王)은 없고 대대로 읍락에 장수(長帥)가 있었다.
- ② (가) -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 ③ (나) -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었다.
- ④ (나) -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 출제 영역 : 부여와 옥저
 ● 정답 : ②
 ▶ 2017년 민주국사 97, 100p
 ■ 해설 : (가) 부여 (나) 옥저
 ① 부여는 왕가 제가들이 다스리는 5부족 연맹체 국가이다.
 ② 부여의 법률은 살인자는 사형에, 도둑질을 하면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으며,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였다.
 ③ 옥저는 민며느리제 풍속이 있었고 서옥제는 고구려 혼인 풍속이다.
 ④ 동예는 폐쇄적 경제를 알 수 있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문 12.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에 따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낙랑군을 축출하고 대동강 유역을 차지하는 데 성공 하였다.
 ㄴ. 왕위가 처음으로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다.
 ㄷ.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죽령일대에서 남양만 선까지 판도를 넓혔다.
 ㄹ. 천리장성을 쌓고 방어체제를 강화하는 등 당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ㄷ→ㄹ→ㄴ
- ③ ㄴ→ㄱ→ㄷ→ㄹ
- ④ ㄷ→ㄹ→ㄱ→ㄴ

◆ 출제 영역 : 고구려왕의 업적
 ● 정답 :
 ▶ 2017년 민주국사 145~147, 162p
 ■ 해설 : ③ ㄴ 2세기 후반 고국천왕 → ㄱ 4세기 초 미천왕 → ㄷ 5세기 장수왕 → ㄹ 7세기 보장왕 때 완성

문 13. 조선시대의 사행(使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전기 명에 파견된 사신은 조천사, 조선 후기 청에 파견된 사신은 연행사로 불렸다.
- ②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통신사를 매년 파견하여 교류하였다.
- ③ 북경에 사신으로 다녀온 인물들을 중심으로 북학이 전개되었다.
- ④ 조선 후기 사행에서 역관들은 팔포무역 등을 통해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출제 영역 : 조선시대의 사행(使行)
 ● 정답 : ②
 ▶ 2017년 민주국사 800p
 ■ 해설 : ②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선조(1607)~순조(1811년)까지 12회 걸쳐 일본에 파견되어 공식적인 외교 사절로서 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였다.

문 14. 다음 격문을 작성한 세력이 제기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음은 그 본뜻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창생(蒼生)을 도탄(塗炭)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磐石) 위에 두고자함이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왜적의 무리를 내몰고자 함이라.

- ① 각종 무명잡세를 근절할 것
- ② 장교를 육성하고 징병제를 실시할 것
- ③ 조약을 체결할 때 중추원 의장이 서명할 것
- ④ 민법과 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

◆ 출제 영역 : 동학 농민 운동
 ● 정답 : ①
 ▶ 2017년 민주국사 1055~1056p
 ■ 해설 : 동학 농민 운동 과정 백산 봉기 때 전봉준의 격문으로 동문들의 요구 사항은 폐정 개혁안에 반영되었다. ① 각종 무명잡세를 일체 폐지한다는 내용은 동학 폐정 개혁안이다.
 ② 장교를 육성하고 징병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은 흥범 14조의 내용이다.
 ③ 조약을 체결할 때 중추원 의장이 서명할 것을 결의한 것은 헌의 6조이다.
 ④ 민법과 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흥범 14조 내용이다.

문 15. 다음 조칙 이후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황제께서 조칙을 내리시길 "민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라.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평안한 것이다. 근본을 굳게 하는 방도는 재산안업(制産安業)하여 항심(恒心)이 있게 하는 것이니 누가 그 직책을 맡는 것인가 하면 정부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 ① 양잠전습소와 잠업 시험장을 설립하였다.
- ② 금본위제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 ③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아문을 설치하였다.
- ④ 상공학교와 광무학교를 설립하였다.

◆ 출제 영역 : 광무개혁의 식산흥업 정책

● 정답 : ③

▶ 2017년 민주국사 1044, 1078~1079p

■ 해설 : 대한제국 시기 경제 정책이다.

- ① 양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양잠전습소와 잠업 시험장을 설립하였다.
- ② 신식 화폐 발행 장정(1901년)에 따라 금본위제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 ④ 상공업 진흥책에 따라 상공학교와 광무학교를 설립하였다.
- ③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아문의 설치는 갑오개혁 1차 내각 때 8아문의 하나로 설치하였다.

문 16. 밑줄 친 '왕'이 조성에 참여한 문화유산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이 사신을 보내어 당나라에 만불산(萬佛山)을 헌상하니 대종(代宗)은 이것을 보고 "신라의 기교는 하늘의 조화이지 사람의 재주가 아니다."라고 경탄하였다.

- 『삼국유사』 -

<보 기>

- ㄱ. 감은사지삼층석탑
- ㄴ. 석굴암
- ㄷ. 상원사 동종
- ㄹ.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 출제 영역 : 경덕왕의 업적

● 정답 : ③

▶ 2017년 민주국사 171p

■ 해설 : 만불산(萬佛山) 경덕왕 때 당나라 대종(代宗)에 보낸 공예품으로 친교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중국 관료의 칭호와 지명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한화(漢化)정책을 추진하였다.

- ㄱ. 감은사지 삼층석탑은 신문왕 때 건립
- ㄷ. 상원사 동종은 성덕왕 때 주조
- ㄴ. 석굴암과 ㄹ. 불국사 청운교·백운교는 경덕왕 때 김대성의 발원에 의해 건립되었다.

문 17. 다음에 서술된 군역제도의 양상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보법을 실시하여 군정수를 크게 늘렸다.
- ㄴ. 지방의 각 진관에서 방군수포가 행해졌다.
- ㄷ. 평민에게만 징수해온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 ㄹ. 종래 군역이 면제되었던 상층 양인들을 선무군관으로 처음 편성하여 수포하였다.

-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 ③ ㄴ→ㄱ→ㄷ→ㄹ ④ ㄴ→ㄱ→ㄹ→ㄷ

◆ 출제 영역 : 군역제도의 양상
 ● 정답 : ②
 ▶ 2017년 민주국사 661~662, 869, 999p
 ■ 해설 : ② ㄱ 보법(세조) → ㄴ 방군수포를 통한 대립제(16세기 중종 무렵) → ㄷ 군역법 시행 이후 재정 보충책(영조) → ㄷ 호포제(흥선대원군)

문 18. 조선시대의 통치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대 국왕의 언행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 태종 때부터 국조보감을 편찬하였다.
- ② 춘추관은 관청별 업무일지인 여러 관청의 등록(膽錄)을 모아 시정기를 정기적으로 편찬하였다.
- ③ 조선 초기부터 왕실 관련행사나 국가적인 행사에 관한 기록이나 장면을 모은 의궤를 만들었다.
- ④ 승정원의 주서(注書)는 왕과 신하 간에 오고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하여 승정원일기를 작성하였다.

◆ 출제 영역 : 조선시대 통치기록
 ● 정답 : ①
 ▶ 2017년 민주국사 696, 698~699p
 ■ 해설 : ① 세조 때 실록 중에 왕들의 선정(善政)과 훌륭한 언행(言行)을 모아 국조보감을 편찬하여 왕들의 정치 참고서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문 19. 밑줄 친 '아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버지는 권력의 부침에 따라 아첨하는 자들을 보면 참지 못하였으니 이 때문에 평생 남의 노여움을 사고 비방을 받는 일이 아주 많았다.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이런 세태를 미워하셨다. 그래서 아홉 편의 전(傳)을 지어 세태를 풍자하셨는데 그 속에는 왕왕 우스갯소리가 들어 있었다.

- ① 정조가 일으킨 문체반정(文體反正)의 주 대상 인물이었다.
- ② 주자성리학을 비판하고 양명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였다.
- ③ 『청사열전』을 지어 김시습 등 도가(道家) 관련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하였다.
- ④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호민(豪民)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 영역 : 박지원
 ● 정답 : ①
 ▶ 2017년 민주국사 939p
 ■ 해설 : 박지원의 아들 박종채가 박지원의 생애와 가르침을 과정록(過庭錄)이라는 책에 남긴 글이다.
 ① 정조는 박지원의 현실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패관소품체를 비판하고 문체반정(文體反正)을 주장하였다.
 ② 정제두는 강화학파를 형성하고 양명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였다.
 ③ 허목은 『청사열전』을 지어 김시습 등 실존 인물 5인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열전(列傳)의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④ 허균은 호민(豪民) 중심의 사회를 강조하였다.

문 20. 밑줄 친 '이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방 며칠 전, 엔도 정무총감은 어제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모욕하던 이 사람을 초청하여 일본인의 생명 보호를 애걸하였다. 그러자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 정치범의 즉시 석방, 청년 학생의 자치대 결성, 정치적 활동의 자유 보장, 3개월 간의 식량 확보 등 4개 조항을 조건으로 내걸고 응락하였다. 돌아오는 길에는 동지들로 하여금 자치대를 조직하게 하였다.

- ① 반탁을 주도하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다.
- ② 미군정의 지원을 받은 좌우합작위원회에 참가하였다.
- ③ 신민족주의를 내세운 국민당을 창당하였다.
- ④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표방한 신민당을 결성하였다.

◆ 출제 영역 : 여운형
● 정답 : ②
▶ 2017년 민주국사 1397, 1401, 1410p
■ 해설 : 여운형과 정무총감 엔도와의 협상 내용이다.
① 이승만은 신착통치에 반대하고 우익 중심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다.
② 여운형과 김규식은 미군정의 지원을 받은 좌우합작위원회에 참가하였으나 미군정은 이후 극좌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우익을 지원하였다.
③ 안재홍은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를 내세운 국민당을 창당하였다.
④ 백남운은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표방한 신민당을 결성하였다.

